

## 지속 가능한 발전 촉매제로서의 무형유산 NGO 활성화

가브리엘레 데시데리오

이탈리아 UNPLI 무형유산부 프로젝트 매니저

### 개요

이탈리아 지역진흥협회네트워크(UNPLI)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오래된 중세 도시를 중심으로 약 6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만여 건 이상의 행사, 전시회, 축제 등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약 6,000개의 지역진흥협회(Pro Loco association)로 구성된, 이 나라 유일의 특별한 마을이나 장소 홍보를 맡아 처리하는 단체다. 이탈리아에서는 많은 소도시와 마을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교, 대학교,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일종의 시민협회인 지역진흥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전통문화의 장인, 음악가, 지역전문가, 지역문화유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등 730편 이상의 동영상을 올린 유튜브 사이트 'UNPLI 프로젝트의 온라인 목록([www.youtube.com/user/ProgettiUNPLI](http://www.youtube.com/user/ProgettiUNPLI))을 만들었다.

UNPLI는 또 다른 이탈리아 공인 NGO인 SIMBDEA와 협력하여 이탈리아 무형유산 연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들 두 NGO는 매년 5월 1일 '산도메니코 사제 및 뱀 의식 축제'이 열리는 아브루초 주의 소도시 코쿨로에서 참여형 목록화 전략

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무형유산 NGO 국제포럼 사이트(www.ichngoforum.org)와 페이스북 '무형유산과 시민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 지역진흥협회네트워크와 무형유산 보호 활동

UNPLI는 2003년부터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사업(www.progettunpli.it)으로 이탈리아 지자체 인구가 적어도 3분의 1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지역의 관광 요인을 활성화시켜 관광객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 왔다. 사업이 끝날 무렵에는 지역공동체와 공동으로 제작한 관광책자를 제공했다. 우리는 협회네트워크로부터 자료 기부 및 목록화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탈리아 전역을 돌아다녔다. 방문한 모든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어 지역 기관 및 시민들과 함께 2003년 협약으로 주어진 기회와 취약한 해당 지역의 팔목할 만한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진흥협회는 이미 수많은 지역 전통의 활성화와 증진 및 전승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의 무형유산 사업 참여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UNPLI는 전통, 의식, 지역유산 등 다양한 무형유산을 다룬 문서 4,000여 건을 지역진흥협회, 지자체, 대학, 학교, 기타 협회로부터 수집하여 2009년에 이탈리아 문화유산 전문 국립도서관을 설립했다.

2010년에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린 'UNPLI 프로젝트'라는 유튜브 채널은 지역공동체가 우리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 채널은 지역공동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구축됐다. 또한 수백 편의 인터뷰 영상을 포함해 전통문화, 의식, 주요 사회 행사, 와인과 식도락, 예술품 및 공예품을 담은 명실상부한 기록물보관소가 되었다.

2014년 7월 현재 이 채널의 조회 수는 75만 건을 넘어섰다. 대부분의 조회는 이탈리아에서 기록됐지만 일부는 최근 또는 몇 년 전에 이탈리아를 떠난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독일, 벨기에, 스위스, 호주 등 국가에서도 이루어졌다.

UNPLI가 2012년에 공인된 이래 우리는 지역진흥협회의 2003년 유네스코협정 목표 인식 제고를 위해 본격 노력했다. 협약의 내용에 따른 기회를 두고 토론을 벌였으며, 이탈리아 유산 보호와 관련해 전략 차원의 지역진흥협회네트워크 역할뿐만 아

니라 전문가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UNPLI는 무형유산과 문화 표현물을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마련하여 홍보하기 시작했다. 2013년 1월에는 토착어와 방언의 날(Local Languages and Dialects' Day)을 제정했다. 매년 1월에는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다채로운 의사소통 방법인 토착어와 방언의 보호 및 전승과 관련 깊은 수백 가지 행사가 이탈리아 전역에서 UNPLI 주최로 열린다. 이 같은 활동에 문화 단체, 학교, 대학, 기관, 지자체가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2013년 말에는 '토착어와 방언의 날'과 연계하여 국가문학상(National Literary Prize)을 제정했다. '토착어를 지켜라'(Save Your Local Language)라는 명칭의 이 상은 올해로 2회째를 맞았으며, 언어학자 툴리오 데 마우로(Tullio De Mauro) 등 세계 유명 언어학자들의 기부와 다수 부처 및 기관의 후원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월 말에는 이탈리아 의회와의 간담회를 주관하여 UNPLI의 활동 성과와 2003년 유네스코협약에 따르는 기회를 설명했다.

UNPLI는 해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책임자가 무형유산 보호 및 전승과 관련한 지역진흥협회 전략 차원의 역할 인식 증진 방안 강구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부 협회는 자신들의 지역공동체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화유산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종의 기록화 작업이 지역공동체 시각에서 공동체에 의해 직접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행사를 조직하고 공동체, 기관, 대학을 활동에 참여시키며 협약의 목적과 방법을 놓고 성찰 및 논쟁을 벌이는 등 UNPLI는 2003년 유네스코협약 이행 역할에 적극 임하고 있다. 국제 차원에서 UNPLI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공인 NGO로서 무형유산 NGO 국제포럼에 매년 참석한다. 2013년부터는 무형유산 NGO 국제포럼 사이트(www.ichngoforum.org)와 함께 무형유산 보호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 조직, 기관, 개인이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공간인 페이스북 '무형유산과 시민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포럼의 가시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문화·지역 공동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 이탈리아 무형유산 네트워크

2012년 발리에서 열린 무형유산위원회 회의 이후 이탈리아 무형유산 체계와 2003년 유네스코협약에서 언급된 공동체 참여의 가치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간에 괴리가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탈리아 NGO인 '유산과 박물관 연구협회'(SIMBDEA)는 앞장서서 '이탈리아 무형유산 보호 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했다. UNPLI가 지지하는 이 계획은 경험 전수와 문제점 공유, 훈련, 지역·국가·국제 차원의 행위자 간 의사소통 활성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NGO SIMBDEA는 민족지박물관을 비롯해 인류학과 사회과학 및 연구와 관련된 여러 협회를 결집시키는 데 비해 UNPLI는 6,000여 개 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지역 차원의 포괄 협의체 네트워크다. 2013년 1월에 열린 국제회의 '무형유산: 시민사회, 연구, 제도'는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제도를 갖추고 있거나 안토니오 아란테스, 키아라 보르톨로토, 마르크 야코브 등 무형유산 전문가와 학자들의 조력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 NGO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탈리아 문화관광부는 2014년에 무형유산 국가보고서 준비를 위한 모니터링 업무 담당 기관으로 SIMBDEA를 지명했다(NGO의 도움으로 작성되는 이탈리아 정기보고서). 2014년 4월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민족지박물관, 대학교, 지역진흥협회, 문화기관, 네트워크, 지역공동체를 포함한 관련 행위자 다수의 협조로 작성되었다.

공인 기준 관련 논의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모든 단계에서 NGO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1) 국제 차원에서는 NGO 포럼뿐만 아니라 경험 및 유산 보호 모범 사례와 육성 프로젝트, (2) 국내 차원에서는 이탈리아 정기보고서와 관련해 국내 기관과의 대화 및 협력을 토대로 NGO 네트워크를 통한 기부 방식, (3)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과 기관이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 등으로 NGO의 참여를 도모한다.

지역 차원에서 SIMBDEA와 UNPLI는 또한 참여 성격의 목록작성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매년 5월 1일 '산도메니코 사제 및 뱀 의식 축제'가 열리는 아브루조 주의 소도시 코쿨로에서 우리는 (지역 사회와 경제 상황에 주목하면서 참여형 유산 보호 방식 형성에 도움을 주는) 뱀 의식의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목표로 하는 실험 사업이자 이탈리아에서 아직까지 활용된 적이 없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gabriele.desiderio@unpli.info](mailto:gabriele.desiderio@unpli.info)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통합 계획과 실행에서의 문화유산 NGO 역할

아난야 바타차리아  
인도 콘택트베이스 사무총장

### 개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협약과 운영지침은 NGO 역할의 중요성을 개략 서술하고 있다. 특히 협약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지역·국제 차원에서 프로그램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원 투입을 위해 모범 사례와 도전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지식 제공과 법률 수립 및 역량 구축으로 공동체의 보호 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NGO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형유산 NGO가 거둔 성과는 공동체 역량 구축, 연구 및 기록화 작업, 문화 관광을 통한 유산 지역과 공동체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 국경을 초월하는 창조 활동 장려, 문화 자원 구축, 관련 문화예술 기관 조직 등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무형유산 NGO는 2015년 이후 개발 정책 틀에 문화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의 주 의제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빈곤 퇴치, 공동의 번영 추구 및 평등 실현, 교육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성 평등과 여권 신장 확대, 개발 및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국제 동반자 관계 구축, 평화롭고 포용하는 사회 구축 등 SDGs의 세부 사항 달성에 필요한 핵심